



D-30 미리보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5일~11월3일)가 5일로 개막 30일을 남겨두고 있다. '빛-LIGHT'를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38개국 818명의 디자이너와 114개 기업(기관)에서 출품한 2천7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디자인 축제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 디자인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는 것은 물론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총체적인 디자인 전람회로 꾸며진다.

빛과 디자인이 만나다

38개국 818명 참가 작품 2007점 전시
디자인의 미래 조망 총체적 전람회로

◇ 본전시·특별전시

전시 주제인 'L.G.H.T'를 주제로 구성된 본 전시는 ▲Life(생활의 빛) ▲Identity(정체성의 빛) ▲Green(환경의 빛) ▲Human(감성의 빛) ▲Technology(진화의 빛) 등 5개관으로 구성됐다.

'생활의 빛'은 '미래와의 조우'를 캐치프레이즈로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환경과 디자인, 미래의 도시디자인, 즉각 커뮤니케이션 작품 196점이 선보이며, '정체성의 빛' 코너는 디자인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반영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환경의 빛'에는 재활용 제품의 이동식 주거 디자인과 종이를 이용한 수공예품 등 285점의 환경 관련 디자인 제품 및 영상작품들이 출품된다.

'감성의 빛' 코너에서는 각 국의 공공디자인 사례와 평범하고 절제된 수퍼노멀 디자인 등을 볼 수 있다. '진화의 빛'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빛'을 조망하는 공간이다.

특별전으로 마련된 '명예의 전당-20세기 디자인 박자취'(큐레이터 최익서)전에서는 지난 20세기의 각 시대별 디자인을 대표할 만한 제품 1천321점이 소개된다.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1910년대 디자인 제품을 비롯 2000년까지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 주요 참여 작가

참여 작가인 비토 아콘치(미국)는 세계 디자인계의 명장으로 꼽힌다. 건축사무소인 아콘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건축과 조경, 가구 디자인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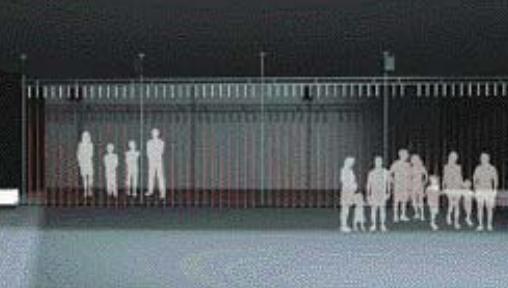
야코포 포기니 작 'Honeycomb lamp'



데이비드 트루브리지 작 'Coral'



콘스탄틴 그리치지 작 'Mayday lamp'



제인 로윈 작 'Light Harps'

이순인 디자인 총감독



“빛고을 광주’ 디자인적 가치 조명 최선”

번 행사를 통해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10대 종합디자인 대회로 도약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감독은 "지난 대회가 관객적이었다면 이번 전시회는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디자인의 모습을 본전시, 특별전,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보여주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빛고을 광주'의 디자인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빛-LIGHT'로 행사 주제를 정했다는 그는 "관객들이 전시공간에서 새롭게 변화, 확장되고 있는 디자인 개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2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는 빛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한편 디자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순인(48)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4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이 랩프'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이 밖에 2006 토리노 동계 올림픽 개막행사 조형물을 제작한 야코보 포기니(이탈리아)의 조명작품, 레자바 아베디니(이란)의 페르시안 타이포 그라피 등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댄덤 인터내셔널'(영국), '교우에 디자인'(일본), '아키텍처 포 휴먼리티'(미국) 등 국제적인 디자인 그룹들도 참가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1세기 디자인의 새로운 대안은 '융합과 소통'이라고 전제한 그는 "융합은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그 전제는 소통이다"며 "디자인비엔날레 개최를 계기로 지역 산업과 문화가 상호 소통함으로써 광주 광산업은 물론 지역산업의 발전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엔날레가 전문가들보다는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시공간,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는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데가박스

구. 런던 악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 1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최고급관
- 2관 스타더스트 (12세)
- 3관 화려한 휴가 (12세)
- 4관 미스터 브루스 (18세)
- 5관 디스터비아 (12세)
- 6관 두사람이다 (18세) /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 7관 라파예트 (5세)
- 8관 만남의 광장 (12세) /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
- 9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5월 1일부터 메가타운 데이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 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 고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 요금 부과
★ 무료 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 1관 화려한 휴가 (12세)
- 2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
- 3관 만남의 광장 (12세)
- 4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 5관 디워 (12세)
- 6관 심슨가족 더 무비 (12세)
- 7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6대 일석이 삼영합니다 1588-7941
• 팝콘 하루 (100g) 젤리리 상영중
상영시간을 확인
→ 시즌 0 건강 → 0원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아마존)

- 1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
- 2관 죽어도 해피엔딩 (15세) / 두사람이다 (12세)
- 3관 미스터 브루스 (18세)
- 4관 디워 (12세)
- 5관 살상률더웨이 (12세) /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 6관 디스터비아 (12세)
- 7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 8관 사랑의 레시피 (전체)
- 9관 만남의 광장 (12세)
- 10관 화려한 휴가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6대 일석이 삼영합니다 1588-7941
• 팝콘 하루 (100g) 젤리리 상영중
상영시간을 확인
→ 시즌 0 건강 → 0원



줄거울이 기독

*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 1관 두사람이다 (18세)
- 2관 디워 (12세)
- 3관 사랑의 레시피 (전체)
- 4관 라파예트 (15세)
- 5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 / 죽어도 해피엔딩 (15세)
- 6관 만남의 광장 (12세)
- 7관 살상률더웨이 (12세) /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 8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 / 죽어도 해피엔딩 (15세)
- 9관 화려한 휴가 (12세)

* 리버사이드 호텔 무등극장 (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팝콘 하루 (100g) 젤리리 상영중
상영시간을 확인
→ 시즌 0 건강 → 0원



시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 / www.jellicinema.co.kr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화려한 휴가 (12세)
- 2관 리턴 (18세) / 만남의 광장 (15세)
- 3관 미스터 브루스 (18세)
- 4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 5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 /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 6관 디워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새마을 협동조합주차장)
입장권 구매 고객에게 한정



너른 야외 신명난 궂한판

타악 그룹 '얼쑤' 15주년 연주회 ... 8일 광주 양과동 문화체험터서

지난 1992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타악 그룹 얼쑤가 올 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한국의 전통문화인 풍물놀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현적 작품을 선보이며 디자인연주를 선보여온 얼쑤가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양과동 '문화체험터 얼쑤'에 대축제로 15주년을 맞이한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에 대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

당초 실내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불'과 '불'을 이용하는 일부 장면을 대체하는 탓이다